

格 있는 책을 위하여

정달영

한국일보 편집위원 실장

세종임금은 ‘읽지 않은 책이 없다’(無書不讀)고 할 정도의 독서광이었다 한다. 일찌기 세자 시절에 지나친 독서로 몸을 상하는 지경에 이르자, 태종임금은 세자가 거처하는 곳의 모든 책을 치우게 하고 ‘아무 것도 읽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 그런데 그때 책을 치운 환관의 실수로 병풍 틈에 「구소수간」이라는 책 한권이 끼어 남아, 세자는 이 책을 숨겨 읽기를 천번도 더 했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徐正의 「필원잡기」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선인들의 독서열, 지식욕, 서책에 대한 태도 등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한국출판문화 1,300년 展’이 열린 일이 있다. 13세기를 헤아리는 그 숫자는 이땅에서 전개되어온 문화의 역사와 그 향훈이 만만찮은 세계적 자랑이요 무게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옛 말에 ‘汗牛充棟’이라는 표현이 있다. 소가 땀흘려 나를 정도의 책, 집을 가득 채울 정도의 책을 말하는데, 아마도 선비의 집에 책 많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게 아닌가 한다. 사사롭게 말하면, 시골 집 구석구석에 가득 쌓였던 옛 서책의 기억이 지금 이 말을 생각나게 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같은 기억이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놀라움’은 책의 많음에 있지 않고 책에 들인 정성에 있음이 새삼스럽다. 책이란 도무지 정성스러운 것의 총화였다.

책을 꿰매는 방법의 가지가지, 한 묶음의 책을 덮고 감싼 재킷, 상자들의 정교함, 그러한 꾸밈들에 쏟아 넣은 정성, 아름다움… 계다가 엄청난 시간의 결과인 필사본을 펼쳐 들면 종교적인 경건함마저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 책들은 이미 책에 머물지 않는 ‘책 이상의 무엇’으로 비쳐진다. 그 ‘무엇’ 앞에서는 책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건성으로 외면할 수도 없다. 그것을 일러 정신이라거나 향기라거나 품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 ‘格物致知’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무릇 사물의 도리를 다 안 다음에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지만, 그 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격’이다. 사전적 풀이로는 ‘격’은 ‘법칙’이고 ‘바름’이다. 사람에게는 ‘중대’나 ‘뜻’이 된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어야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책에도 ‘격’이 있어야 책이다. 스스로 존엄해야 한다. 저술에서 제작—유통에 이르도록 정성이 깃들어야만 책은 비로소 ‘격’을 얻게 될 것이다.

요즘은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선거용’이라고 할 책들이 도처에 범람하고 있다. 책이 선전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책이 읽히는 데 앞서 ‘뿌려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 책들은 책으로서의 ‘격’을 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책에 대한 일반의 애정을 손상시킨다.

서점에는 수많은 ‘해금도서’들도 서가를 메우고 있다. 반가운 만남도 있고 서글픈 목격도 있다. 해금도서들 중 일부는 금지되어야 할 까닭도 없었고 값어치도 없었던 것들이다. ‘격’을 갖춘 책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음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훌륭한 저자는 단 한 사람의 진정한 독자를 위해서도 책을 쓴다. 마찬가지로 좋은 출판인은 단 한 사람의 진정한 독서인을 기르기 위해서도 ‘격 있는 책’을 만들 것이다.

정성을 들여 만든 책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출판제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1987년 11월 20일 제 9 호
격주간 매월 5·20일 발행

책이 있는 에세이 2 썩지 않는 한 줄기 황금선 / 金容誠

초점 4 言論관계법, 무엇이 어떻게 달리졌다 / 金昌基

시론 6 우리나라 科學出版의 현실 / 朴星來

16 긴 잠에서 깨어난 圖書館法 / 曹元鎬

지금 독서중 8 복거일의 「碑銘을 찾아서」 - 하얏트호텔 金鳳榮부장

박태순의 「國土와 民衆」 - 사업가 宋文浩씨

9 네루의 「세계사 편역」 - 동아제약 金慶重과장

카프카의 「變身」 - 공릉중 교사 許益씨

10 시몬느 보봐르의 「처녀사절」 - 아나운서 崔瀞仙씨

지금 제작중 10 애니메이션 동화 「무지개극장」 시리즈 - 예림당

著作구상 11 「韓國古小說史」 / 蘇在英

집필중 11 「물의 나라」와 「冬天」 / 朴範信

책의 뒤안 12 俗世의 罷怠임 벗어난 神仙世界 / 許英桓

출판화제 13 專門書 번역출판에 큰 성과

14 漫畫출판에 제3의 물결

독서교육 18 美國 중고교의 독서교육 / 金炳元

독서의 현장 19 작지만 알찬 「삼영電子」 도서실

서재 24 국악학자 張師勤 박사의 서재

얼굴 17 컴퓨터 코드변환 프로그램 개발한 韓圭冕 씨

세계의 출판 26 도마 위에 오른 「국제연합」 外

책의 세계 30 브리태니커의 「프로페디어」 / 김호근

서평 20 「사회인식론」 - 丁大鉉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 李光周

21 「韓國議會政治와 言論役割研究」 - 李甲允

「日本言論界와 朝鮮」

22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 - 韓相震

「에피고넨의 시대」 - 金柱演

23 「영화의 이해」 - 金鍾元

「朝鮮初期身分制研究」 - 李根洙

자료 28 제20회 문공부 추천도서 선정목록

독자서평 31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진화」 「젊은날의 고뇌」

15 책주변의 이야기

32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 이색출판 / 화제의 책

40 어린이책 들춰보기

42 출판계 움직임

43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

44 신간 도서목록

48 독서 퍼즐 / 社告 / 정기구독안내